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주영 과장(044-203-5580) 박학희 사무관(5584)
창조행정담당관 박덕열 과장(044-203-5530) 이주노 사무관(5533)

산업통상자원부, 「지진대응 긴급대책 회의」 개최

– 경주 지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 논의 –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 주형환 장관은 지진발생(9월12일, 19시44분) 직후 「지진상황 대책본부」를 설치하여, 원전, 발전소, 송배전망, 가스, 송유관 등 **에너지 관련시설**과 **업종별 기업**들의 지진에 따른 전반적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,

○ 9.13(화) 오전 7시 30분 **에너지·산업단지 유관기관 기관장**들과 **「지진대응 긴급대책회의」**를 개최함

○ 이날 회의에서는 **에너지 기반시설, 업종별 기업**들의 지진 피해 상황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

- (일시·장소) 9.13(화) 7:30~8:30, 정부서울청사 별관 및 각 기관(PC 화상회의)
- (참석자) **산업부**(주형환 장관, 1·2차관, 기획조정실장, 산업정책실장, 산업기반실장, 에너지자원실장), **1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**(한국전력, 전기안전공사, 한국가스공사, 가스안전공사, 한국동서발전 등)
- (주요내용) 경주 지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

□ **에너지 기반시설 및 주요 기업별 피해 상황(13일 03시 기준)**

【에너지 기반시설】

○ 15개 에너지 공공기관*에 대해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변전소·발전소 각각 1개소가 설비 중단되었으나 단시간내 복구하여 재가동됨

- 한전 울주변전소 3번 변압기(중단 19:44, 복구 21:21),
  한국동서발전 울산 LNG 복합화력(중단 19:44, 복구 01:07)

*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석유공사, 대한송유관공사,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원자력환경공단

【업종별 기업상황】

○ 주요업종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, 11개 업체가 설비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대부분 단시간내 재가동됨

- 11개 업체 모두 가동중단 외 추가 인적·물적 피해 규모는 미미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**(석유화학)** 울산석유화학 단지 내 일부 업체들의 생산설비 중단이 있었으나, 현재 정상 가동중

* 울산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진도 7.0 내진 설계로 건설·운영중

○ **(철강)** 전기설비 이상으로 일부 고로·제강 설비의 일시적 장애가 보고되었으나, 이후 정상 가동중

○ **(반도체)** 진동에 민감한 일부 장비가 가동 중단 되었으나, 즉시 재가동

○ **(디스플레이·전자)** 플라스틱 사출 작업이 일시 중단 되었으나 생산에는 차질없음

○ **(조선)** 특이 피해상황은 없으나 지진여파로 도크 옆 작업 크레인 선로 변형 여부를 점검할 계획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9-13 11:27:12

○ **(자동차)** 일부 자동차 회사의 경우 근로자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, 12일 22시부터 공장 가동중단 하였으나, 금일 정상가동 예정

○ **(섬유)** 일부 업체에서 생산중단으로 소액(4천만 원) 피해가 보고되었으나, 신속한 복구 이후 정상 가동중

□ **대응방안**

○ 에너지 기반시설의 경우 경주, 울산 등 지진의 직접영향지역에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

○ 산업의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주요 업종별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

□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"지진에 따른 상황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관별 **비상대응 체제 유지**와 **실시간 상황전파**"를 강조하면서, "**비상대응 매뉴얼**을 토대로 **상황에 신속히 대응**하되,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**즉각적인 비상조치**를 취할 것"을 당부하였음

○ 특히, "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력·석유·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 기관장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주기"를 주문하였음

○ 아울러,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, 수동정지한 월성 1-4호기에 대해서는 원안위와 협의하여 철저히 안전을 점검하라고 주문하였음

- 또한 현재는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주노 사무관(☎ 044-203-55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9-13 11:27:12

<참고> **지진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요**

□ 회의개요

○ **일시** : ’16.9.13(화) 07:30~08:30

○ **장소** : 서울청사(별관) 및 세종청사, 각 기관 (PC 화상회의)

○ **참석자** : 장관님, 1·2차관, 기조실장, 산정실장, 기반실장, 자원실장
1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

○ **회의내용**

- 경주 지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세 부 일 정	비 고
07:30~07:35	5′	· 모두 말씀	장관님
07:35~07:40	5′	·16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보고	기조실장
07:40~07:50	10′	· 주요 업종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보고	기반실장
07:50~08:25	35′	· 토론(향후 대응방안 등)	참석자
08:25~08:30	5′	· 마무리 말씀	장관님